

야구

6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SK 김성현 두산 페르난데스 두산 김재환



한화 정은원 롯데 이대호 삼성 박해민

KBO리그 6인의 개근생들

페넌트레이스 개근을 눈앞에 두고 있다. SK 와이번스 김성현(115경기), 두산 베어스 호세 페르난데스, 김재환(114경기), 한화 이글스 정은원(114경기),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113경기),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111경기)은 팀의 전 경기를 소화하며 쉽 없이 한 시즌을 달려왔다. 이는 곧 철저한 자기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김성현은 마땅한 유격수 백업 자원이 없는 팀 사정상 시즌 내내 거친 숨을 몰아쉬어 왔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하더라도 2루와 유격수를 번갈아가며 맡았지만 올 시즌부터는 고정 유격수로 체력, 정신적으로 부담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내야수비의 중심을 책임지고 있다.

정은원은 '주전 풀타임'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있다. 데뷔 2년 차에 리드오프, 2루수로서 입지를 굳힌 그는 "1년 동안 꾸준히 잘 하고 싶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지켰다. 단일 시즌 100경기 이상의 경기를 치르는 것이 처음이지만 타율 0.272에 팀 내 최다 72득점을 책임졌다. 올 시즌 한화의 최고 수확이다.

페르난데스는 KBO리그 첫 시즌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내 꾸준한 타격감으로 200안타(155안타)까지 바라보고 있다. 한 시즌을 치르다보면 부진 혹은 부상으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데 기운을 빼야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페르난데스의 거듭된 맹타에 두산은 이에 관한 고민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투고타저 시대 '20-20클럽'보다 빛나는 키움 유격수 김하성의 영리함



공인구의 반발계수가 줄어들면서 홈런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키움 김하성은 자신의 빠른 발을 활용해 새로운 득점루트를 개척하고 있다.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올 시즌에 딱 맞는 영리함이다. 스포츠동아 DB

도루성공률 89.3% 만능키 김하성

홈런 줄어든 자 발 야구 중요해져
3할 타율에 17홈런도 가치 있지만
25도루...성공률서도 압도적 1위
환경에 맞게 변화한 '똑똑한 야구'

'힘'이 채우던 자리가 텅 비었다. 사령탑들은 그 자리를 '발'로 채우고 싶어 하지만 이를 수행할 마땅한 자원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정석 키움 히어로즈 감독은 고민이 달하다. 공수 겸장에 영리함까지 갖춘 만능 유격수 김하성(24)의 존재 덕분이다. 지난해까지 KBO리그는 '기형적 타고투저'로 불릴 만큼 홈런 의존도가 높았다. 타석 당 홈런 비율(3.09%)은 37년 역사상 최고치였다. 장타가 비일비재한 만큼 무리해 발야구를 감행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 시즌 19일까지 순장타율은

전년대비 26.8% 감소했다. 장타가 급격히 줄어든 탓에 새로운 득점 루트 모색이 절실한 상황. 결국 발의 필요성이 다시 커졌다. 정작 KBO리그 사령탑들은 "필선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도'로 불렸던 정장급 주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도루 1위 박찬호(30도루)도 올 시즌 40도루를 넘기기 힘든 페이스다.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작 수행할 선수가 없는 상황. 김하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시즌 112경기에서 타율 0.313, 17홈런, 25도루를 기록 중이다. 2016년(20홈런-28도루)에 이어 개인 2호 20-20클럽 가입이 유력한 상황. 하지만 단지 개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김하성의 도루 성공률은 89.3%(33실패)에 달한다. 5차례 이상 도루를 시도한 선수 가운데 단연 1위다. 체력 부담이 심한 유격수 가운데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하면서 정확도까지 압도적인 것이다.

20일 수원 KT 위즈전에 앞서 만난 김하성은 "올 시즌부터 2번 타순에 배치됐으니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에 대해 고민했다. 공인구 반발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걸 느껴면서 새로운 득점 루트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병호 형, (제리)샌즈 등 내 뒤 클린업트리오가 든든하다. 내가 한 베이스 더 가는지 여부가 득점과 직결된다. 자연히 한 발 더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발 자체는 자신이 있었던 김하성이다. 하지만 장타로 대량 득점이 가능했던 지난해까지는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 2017년 16도루, 2018년 8도루 등 잔결을 자제했던 이유다. 리그 환경이 변하면 선수도 변해야 한다. 누군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변화를 택할 때 효율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 김하성의 영리함은 20-20클럽보다 몇 배는 더 값있다. 수원 1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삼성 박계범

'지각 1군' 박계범을 향한 삼성 김한수 감독의 기대

"부상 딛고 복귀...공·수서 큰 발전"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박계범(23)은 2013년 8월 열린 2014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전체 17번)에 지명 받은 기대주다. 프로에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새 6년째. 그러나 제대로 1군을 경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5시즌 3경기, 2016시즌 5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타석에는 한 차례도 서지 못했다. 자신보다 낮은 순번에 지명된 동기생 김하성(24·키움 히어로즈), 국군체육부대(상무)에 복무 중인 양석환(28·LG 트윈스) 등의 고속성장을 지켜보는 마음도 편치 않았다.

올해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았지만, 경험치를 쌓아가던 상황에 찾아온 부상이 아쉬웠다. 허벅지를 다쳐 5월 26일 1군에서 제외됐고, 지난 7일까지 74일을 2군에서 보냈다. "엔트리에서 제외되기 전에도 (박계범은) 잘했다"는 삼성 김한수 감독의 말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허벅지 근육이 많이 손상됐었다. 성장 중인 선수는 흐름을 쫓아나가는 게 한창 올라가던 시기에 다 치더라"고 아쉬워했다. 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군에 오려 고고 싶은 마음이 크다"던 본인의 좌절감도 컸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8월부터 1군에 복귀해 꾸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9일까지 올 시즌 29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타율 0.297(74타수22안타), 1홈런, 13타점, 출루율 0.393, 17개의 삼진을 당했지만, 볼넷 11개를 골라낸 탁월한 선구안도 자랑거리다. 뛰어난 송구능력을 앞세운 수비도 점차 발전하는 모양새다. 삼성 김한수 감독도 "박계범은 인연아스 웃음이 가능한 타자다. 공을 밀어칠 수 있고,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잡아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힘을 실어줬다. 목소리도 확고한 믿음이 느껴졌다. 강산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진 1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sports21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9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승	무	승률	경기 연속 타율	경기 연속 홈런	경기 연속 득점	경기 연속 도루	실점					
1	S K	115	74	40	0.649	-	3패	0.265	3.42	0.648	546	434	93	91	70
2	두산	114	68	46	0.596	6.0	3승	0.275	3.55	0.638	574	445	67	70	70
3	키움	117	69	48	0.590	6.5	2패	0.284	3.93	0.625	644	503	93	86	85
4	L G	113	61	51	0.545	12.0	1승	0.267	4.01	0.582	506	519	71	80	72
5	N C	113	56	56	0.500	17.0	2승	0.278	4.14	0.571	547	516	102	64	81
6	K T	115	56	58	0.491	18.0	4승	0.277	4.46	0.585	518	548	77	76	82
7	K I A	113	49	63	0.438	24.0	2패	0.267	4.73	0.516	502	574	61	69	75
8	삼성	111	46	64	0.418	26.0	1패	0.262	4.59	0.527	495	560	99	87	79
9	한화	114	44	70	0.386	30.0	3승	0.256	5.03	0.453	508	608	77	89	86
10	롯데	113	42	71	0.372	33.0	5패	0.257	5.13	0.455	503	636	73	99	91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강백호	K T	0.351	87	33	11	10	62	45	9	47	68	2	0.295	0.945
2	페르난데스	두산	0.342	114	45	15	14	69	7	51	43	3	0.306	0.902	
3	박민우	N C	0.341	95	35	12	11	73	32	17	39	7	0.333	0.827	
4	로하스	K T	0.334	113	41	19	18	53	4	42	93	6	0.302	0.929	
5	이정후	키움	0.332	113	46	15	6	69	60	13	39	36	2	0.346	0.847
6	김현수	L G	0.324	112	42	13	7	66	69	2	55	38	0	0.345	0.863
7	고종욱	S K	0.321	109	39	12	2	61	45	20	13	71	1	0.340	0.789
8	박건우	두산	0.319	111	39	12	8	74	56	11	60	53	3	0.298	0.865
9	안치홍	K I A	0.318	93	33	10	4	42	46	4	39	35	9	0.241	0.797
10	이현종	L G	0.316	110	43	13	7	69	44	16	49	68	1	0.370	0.773
11	김태균	한화	0.316	102	35	11	5	40	62	3	53	77	1	0.301	0.810
12	선재	키움	0.316	113	42	13	5	65	81	4	30	9	0.309	0.960	
13	유한준	K T	0.314	111	41	12	12	54	75	3	44	49	2	0.350	0.822
14	채은성	L G	0.314	100	37	18	7	44	53	1	24	54	1	0.327	0.766
15	김하성	키움	0.313	112	42	13	17	58	85	25	68	66	17	0.354	0.914
16	전준우	롯데	0.304	110	43	12	19	74	70	7	47	55	3	0.296	0.858
17	김현준	삼성	0.302	95	34	10	5	48	41	8	39	36	0	0.308	0.765
18	서건창	키움	0.299	87	32	9	2	54	31	12	40	5	0.320	0.757	
19	최형우	K I A	0.297	112	38	11	5	59	71	0	75	66	0	0.229	0.900
20	손아섭	롯데	0.297	109	41	12	8	63	56	12	46	74	3	0.295	0.760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탈	WHIP	
1	린드블럼	두산	2.03	24	155.0	38	35	19	1	0	125	11	152	30	0.216	0.96
2	산체스	S K	2.21	22	130.1	35	32	15	3	0	111	2	116	36	0.229	1.12
3	김경현	S K	2.44	23	144.0	48	39	14	3	0	148	9	138	30	0.265	1.23
4	양현종	K I A	2.56	24	151.1	48	43	13	8	0	140	5	133	29	0.249	1.11
5	켈리	L G	2.79	24	148.1	64	46	10	12	0	141	5	105	47	0.250	1.18
6	루치스키	N C	2.90	23	142.5	54	46	6	8	0	132	8	94	40	0.247	1.16
7	브리검	키움	2.91	22	126.2	51	41	9	4	0	114	4	98	47	0.238	1.20
8	월슨	L G	3.04	23	142.0	61	48	10	6	0	135	4	101	42	0.253	1.18
9	유희관	두산	3.07	22	132.0	52	45	8	7	0	140	7	52	38	0.275	1.33
10	박종훈	S K	3.53	23	120.0	56	47	7	8	0	132	11	83	55	0.281	1.47
11	쿠에바스	K T	3.64	23	143.1	62	58	10	7	0	115	15	107	56	0.219	1.14
12	요키시	키움	3.71	23	138.1	63	57	9	7	0	132	8	112	42	0.249	1.19
13	체일리	롯데	3.71	24	148.0	68	61	5	10	0	153	7	114	59	0.267	1.39
14	알칸타라	K T	3.72	22	145.1	62	60	11	8	0	156	12	85	25	0.274	1.20

※ 피탈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부문별 베스트 5

출루	타점	득점	최다안타				
① 샌지(K)	25	① 샌지(K)	100	① 김하성(K)	98	① 페르난데스(K)	155
② 로맥(S)	23	② 김재환(D)	85	② 샌지(K)	83	② 이현종(K)	154
③ 노수광(S)	22	③ 박병호(K)	85	③ 박건우(K)	74	③ 로하스(K)	139
④ 최정(S)	22	④ 리프(S)	83	④ 김준우(M)	74	④ 김현수(L)	137
⑤ 이상현(L)	21	⑤ 이대호(L)	82	⑤ 박민우(N)	73	⑤ 이현종(L)	137

도루	장타율	출루율	다 승				
① 박찬호(K)	30	① 샌지(K)	0.578	① 김동범(W)	0.430	① 린드블럼(W)	19
② 김하성(K)	25	② 로하스(K)	0.538	② 최정(S)	0.408	② 산체스(S)	15
③ 노수광(S)	22	③ 박병호(K)	0.533	③ 최형우(K)	0.406	③ 김광현(S)	14
④ 김상수(S)	21	④ 리프(S)	0.524	④ 페르난데스(W)	0.405	④ 양현종(K)	13
⑤ 고종욱(S)	20	⑤ 박석민(N)	0.516	⑤ 샌지(K)	0.402	⑤ 이현종(W)	11

탈삼진	세이브	승률	홀드				
① 린드블럼(W)	152	① 세이브(S)	29	① 린드블럼(W)	0.950	① 김상수(K)	31
② 김광현(S)	138	② 함중현(N)	25	② 산체스(S)	0.833	② 서진용(S)	25
③ 양현종(K)	133	③ 고우석(L)	22	③ 김광현(S)	0.824	③ 김재환(S)	21
④ 필립스(K)	121	④ 조상우(K)	18	④ 이광현(W)	0.733	④ 한현희(K)	21
⑤ 선재(S)	116	⑤ 장우림(W)	17	⑤ 필슨(L)	0.625	⑤ 주재(K)	20

※ 프로야구 기록실 이 신문제적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20일>

●경기결과

텍사스	8-7	LAA	애리조나	5-3	콜로라도
휴스턴	5-4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5-4	볼티모어
워싱턴	13-0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3-2	신시내티